

# 젠쌤 인터뷰 대본

-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

답변 :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근무중이고 전공과를 담당하는 특수교사 구ㅇㅇ입니다.

- 평소에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

답변 : 코로나로 원래 진행하던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어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 하고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라서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- 서비스의 장점

답변 : 실제랑 아주 비슷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햄버거를 주문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 흥미로워 했습니다. 또한 도전과제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도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-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?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?

답변 : 학생들 중에 글을 읽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튜토리얼에서 실제 캐릭터가 이야기하듯이 글을 읽어줘서 재밌어 했습니다. 전공과이다 보니 애들한테 쉬워서 지루해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했고 리얼해서 좋았습니다.

- 향후에도 다행을 사용하실 예정인지?

답변 : 다행을 사용한 후 아하텍에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. 피드백이 적용된 다음 버전의 다행이 출시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.

- 다행에게 바라는 점

답변 : 현재 키오스크가 하나의 가게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. 향후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키오스크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.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전하기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## 젠쌤 스크립트